



“AI 복지 상담사입니다...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광주·전남 11개 시·군·구 ‘AI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범 운영 정부, 1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촉촉한 복지 안전망 기대

“생략비 부족, 체납, 체무 등으로 도움이 일자리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인공지능)
 “네. 전기요금 체납했어요. 혹시 군에서 일자리 알아봐 줄 수 있나요?” (상담 대상자 A씨)
 해남군 복지담당 공무원은 인공지능(AI) 상담 자료를 토대로 상담 대상자 A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AI 상담결과 A씨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해남군은 A씨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 자리 참여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 외에도 기초 생활보장급여 등 공적급여 대상이 되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AI를 행정에도 도입하고, 촉촉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AI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초기상담’ 사업을 통해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복지위기 대상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광주에서는 서구·남구·광산구 3곳이, 전남에서는 목포·순천시·곡성·고흥·보성·장흥·해남·영광군 8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가 단전·단수 등 45가지의 위기정보를 분석해 각 지자체별로 통보한 복지위기 후보자를 대상으로 AI 활용 시스템 적용해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통보한 전남지역 대상 후보자 수만 목포 809명, 순천 739명, 곡성 117명, 고흥 381명, 보성 182명, 장흥 210명, 해남 441명, 영광 200명, 해남 441명 등 총 3079명에 이른다.
 이 외에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후보자가 AI와 초기 상담을 하고 있다. 이처럼 AI 초기 상담 대상자가 많은 만큼 해당 시·군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상담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 AI와 초기상담 자료를 토대로 심층 상담 및 방문 대상자를 정하고,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도 깊은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다.
 AI를 활용하기 전까지는 일일이 전화를 해 초기 상담을 해야하고, 대상자 누락 및 시행 시기 지연 등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했으나, AI 활용 후엔 신속하고 세밀한 초기상담이 가능해졌다는 게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AI활용 초기상담은 사전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으로 시작되며, 이후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이 파악한 위기사각지대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복지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초기 상담이 끝나면 상담내용은 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제공되며, 향후 심층상담·가구방문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사업은 오는 9월 13일까지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방법 등을 확정하고, 11월 말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전기차 화재 대응 ‘질식소화덮개’ 설치 11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동주택에 전기차량 화재용 질식소화덮개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北,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단독 등재 신청

국가유산청 남북공동 등재 나서야
 북한이 태권도를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단독으로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네스코 누리집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 유네스코 본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 무술 태권도’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는 매년 3월 말까지 내야 한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가 무형유산의 의미, 가치, 전승 현황 등을 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등

재 여부가 결정된다.
 코리아(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의 최재준 단장은 “북한이 올해 3월 단독으로 태권도 등재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 단장은 “북한 국제태권도연맹(ITF) 측과 협의해 2018년 (등재된) 씨름과 같은 방식으로 남북이 공동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단독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해 국가유산청(전 문화재청)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은 올해 3월 ‘한지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의 신청서를 낸 상황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대상을 공모해 문화유산위원회와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지 기술을 차기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3~5월 진행된 공모에 태권도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북한은 아리랑(2013년), 김치 담그기(2014년), 씨름(2018년·남북 공동 등재), 평양랭면 풍습(2022) 총 4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씨름의 경우, 남북이 각각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했으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유네스코 측에 공동 등재 요청 서한을 제출한 뒤 등재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소형태양광으로 전기료 아끼세요”

광주시, 공동주택 발코니·경비실 옥상 설치 300세대 선착순 모집
 광주시는 “공동주택 발코니나 경비실 옥상에 소형태양광을 설치하는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참여 300세대를 11월 30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발코니나 경비실 옥상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형(435W)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767세대 29억원을 지원했으며,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냉·난방비 절감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은 냉장고 900리터 1대가 소비(46kwh/월)하는 전기를 생산해 월 8000

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소형(435W)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비는 총 90만원이며, 광주시에서 63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자구는 2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공동주택단지내 다수세대가 참여하면 세대당 최대 10만원까지 추가 혜택(인센티브)도 있다.
 신청자격은 건축법상 지역 공동주택으로 발코니나 경비실 옥상에 소형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설치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2024년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지원사업 참여세대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전남대 원룸촌 범죄예방 환경개선

행안부 ‘대학가 범죄예방’ 공모 선정 CCTV·비상벨 설치...방법창 지원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가 전남대학교 인근 원룸촌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11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의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 공모 사업에서 ‘대학가 범죄예방 복합 커뮤니티 조성 사업’이 선정돼 특별 교부세 3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행안부가 지역별 치안수요를 반영해 지자체의 주민 생활안전 사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광주경찰청과

협업해 ‘대학가 범죄예방 복합 커뮤니티 조성 사업’을 신청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광주경찰청은 총 사업비 7억원(국비 3억5000만원, 시비 3억5000만원)을 투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복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인근 원룸촌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대 주변 원룸촌은 대학생 1인 가구 등이 밀집된 곳으로 야간 보행환경 개선 요구가 많은 지역으로,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비상벨, 홍보용 전광판 등 범죄예방 시설물 스마트폴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스마트폴은 가로등·보안등·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등에 공공 와이파이,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최신 정보기술(IT) 기능을 결합한 첨단 시설물이다. 또 저층부 범죄 취약 원룸에는 방범창, 가스배관 가시덮개 설치 등을 지원한다.
 안전 광주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사업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범죄 취약계층의 범죄 불안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시: 2024. 9. 2(월) 오후7시
-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투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시: 2024. 8. 26(월) 오후7시
-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백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공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일일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관료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분묘소재지: 전남 강진군 성천면 월남리 산 162
- 분묘구수: 1기
- 개장사유: -타인의 묘지에 설치된 무연묘의 처리 -묘지의 효율적 이용 및 재산권 행사
- 개장방법: (주)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주)유연분묘 - 공고기간 종료후 관공에 의뢰하여 개장
- 개장 후 임의철수 기간: -연식 장소: 유년당산군 추부면 서대동길 100 서대산 추부묘원 -연식 기간: 공판 후 10일
- 공고기간: 2024년 7월 29일 ~ 2024년 10월 1일 (최소 공고기간 90일(3개월))
- 신고 및 문의처: -공고인: 김병선 -신고처: 강진보통청(010-3130-1740) -업무대행: 강진보통청(010-3130-1740) 전남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130-1
-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계, 사실향신 등
- 기타사항: 개장 공고 후 식약처로부터 누락된 분묘와 개장중 수거로 발견된 분묘는 이공고로 감당합니다.

2024년 8월 12일
 공고인: 김병선
 신고처: 강진보통청(010-3130-1740)
 전남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130-1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 의의 및 권리제한 공고)
 한양이씨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금호(이하 “을”이라 함)는 2024년 08월 11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에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 회사로 이익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4년 8월 12일
 (법인등록번호: 110111-4071603)
 서울특별시 은평구 용암로 214-10, 301호 (용암동, 아일캐슬)
 사내이사 문주환

“을” 주식회사 금호 (법인등록번호: 204911-0012595)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동산마전길 108 사내이사 노형순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